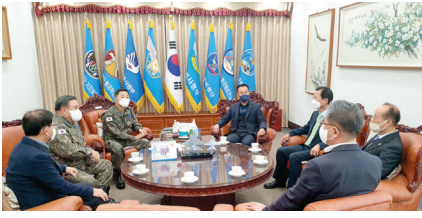


광주지부



광주지부(지부장 손정문)는 12월 6일 지

부 회장단 및 고문 등과 함께 1전비를 방문하여 지회관 전별 인사 겸 지부와 부대와의 상호 유대강화 방안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12월 6일 광주, 전남 공군전역장교 모임인 무등보라매회 회원들은 별도의 송년 모임을 가졌으며, 12월 8일에는 지부 회장단 및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모임을 갖고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다.//

대구지부



과 친목을 다졌다.//

대구지부(지부장 남상석) 12월 8일 대구 기지 이근석 기념관에서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하반기 이사회를 진행하여 재정현황 보고 및 회기결산 변경, 장학회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으며, 본 행사는 국민 의례, 임원진 인사, 공군홍보 영상 “하늘의 영웅”을 시청하고, 오찬 및 행운권(12명) 추첨 후 공군가 제장으로 회원들간의 화합

제주지부



제주지부(지부장 좌중언)는 12월 19일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공군전우회’라는 슬로건으로 월례회 및 송년 모임을 개최했다. 좌 지부장은 “계묘년 새해에도 지부 위상과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하고, 회원 추가확충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인천지부



인천지부(지부장 최용주)는 12월 15일 회장단 7명이 연말연시를 맞아 인근 166미사일 방어대대 5포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 100만원과 방한마스크 150매를 전달했다.//

동두천지회



동두천지회(지회장 김정수)는 12월 16일 지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김 지회장은 “오랫만에 전우들을 만나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년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천지회



사천지회(지회장 박갑용)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 '22사천에어쇼 기간중

매일 지회원 10명씩 2인1조로 안전순찰을 돌면서, 지상안전 취약요건을 사전에 발취하여 조치함으로써 한건의 지상안전 사고 없이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봉사하였으며, 지회여성회는 음료, 병과, 커피, 귀마개를 저렴하게 판매하여 관람객의 편의도모에 기여함으로써 사천지회 홍보 및 위상을 제고시켰다.//

원주지회



원주지회(지회장 김구식)는 10월 13일과 11월 10일 각각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12월 8일에는 원주 웨딩타운에서 회원 및 가족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함으로써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다.//

양평지회



양평지회(지회장 김수영)는 12월 3일 지

회 고문 및 지회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모임을 가졌다. 김 회장은 “다사다난 했던 금년 마무리 잘하시고 계묘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12월13일에는 지회 고문단 및 회장단 일행이 김영태(공군출신) 양평군청 부군수와 간담회 시간을 갖고 상호 유대강화 방안을 논의 했다.//

창원지회



창원지회는 10월 15일 지회원 및 부녀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체육대회

를 개최했다. 행사는 푸짐한 경품과 보물찾기, 가위 바위 보 게임, 눈치 게임과 족구경기를 했다. 그리고 12월13일에는 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5대~46대 회장 이,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성배 신임 회장은 “다 함께하는 창원지회, 활기찬 창원지회”를 슬로건으로 회원간 친목과 더욱 발전된 창원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회



전주지회(지회장 정호영)는 10월 22일 회원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3년만에 모처럼 추계 야유회를 가졌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만나지 못한 회원들은 그동안의 안부를 서로 전하고 하루를 즐기면서 힐링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

충주지회



충주지회(지회장 조동주)는 12월 16일 지회원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행사를 가졌다. 코로나 영향으로 그동안 서로 얼굴을 잊고 살았던 전우들이 만남의 장을 가짐으로써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충남서부지회



충남서부지회 (지회장 조봉환)의 일원인 당진시 소재 전우회원들은 10월 29일 모임을 갖고 회원간의 친목을 다졌다. 그리고 11월30일 창원지회 회원 8명이 서산체력 단련장을 방문시에 충남서부지회 조 지회장 등 임원들은 환영행사를 했다.//

인생의 모범 답안

이영하 (예 중장, 공사22기, 전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장)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는 모범답안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모범답안을 가

르쳐 주는 중요한 열쇠는 무슨 일을 시도할 때마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모범 답안입니다. 세계 최고의 발명왕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 끝에 성공을 쟁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000번에 걸친 실패를 거듭하였으며 이러한 인내와 노력의 결과 마침내 인류를 환하게 밝히는 전구를 발명하였습니다.

어느 한 기자가 이러한 에디슨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1000번의 실패를 하셨는데 그만큼 많은 실패를 하시고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에디슨은 기자를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00번의 실패라니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완벽한 전구를 만들기 위한 하나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나는 전구를 만들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그만큼 더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을 들여다 보면 에디슨의 경우와는 반대로 똑같은 실패속에서도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패에서 새로운 방법과 교훈을 발견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고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안내하는 성공의 이정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실패도 성공을 위한 하나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서 실수가 있다 하여 여기에 연연하고 좌절하기 보다는 그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자세. 그러한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는 늘 가슴이 아픕니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실패는 우리의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알림판일 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은 참 매력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것을 견뎌내고 다시 시작하다 보면 실패는 아름다운 성공으로 바뀌어져 우리들 곁으로 다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 !!!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일이나 한 가지의 사건으로 인해 한번 포기하면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드높은 의지와 열정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따르더라도 이를 극복해 나가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마치 오투기처럼 일어서는 의지와 집념과 투지의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자신을 채찍질해 나가면 우리나라가 추구해 나가고 있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1000번의 실패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1000가지의 교훈으로 받아들여 세계 최고의 발명왕이 된 에디슨의 지혜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주강국의 꿈, K뉴스페이스

안재봉 (예 준장, 2사 5기,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부원장)

우주항공청 원활한 임무수행위해 관련 법령·제도·절차 등 보완 필요 우주기술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고 선진국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해야



는 우주군사령부를 신설했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12월 14일 주한 미우주군을 창설했다.

한국은 6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네 차례 더 쏘아 올려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2032년에는 달에 착륙시킬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우주경제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과 달·화성 탐사, 우주산업 육성 등 6대 정책방향을 포함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주산업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자 국가 경쟁력이며 국력의 척도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K뉴스페이스 구현을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올해 출범 예정인 우주항공청이 개

지난해 11월 16일 미국의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중국은 이르면 2025년에 우주관광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이스X·블루 오리진·버진갤럭시가 주도하는 우주여행에 중국이 뛰어들면서 세계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에서의 우주작전은 현대전 수행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러시아는 독자위성항법시스템(GLONASS·글로나스)이 해킹됨에 따라 최첨단 전투기의 운용이 제한됐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스타링크 등 민간 우주자산을 이용해 정보·감시·정찰(ISR), 지휘·통제·통신(C3) 등의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11월 22일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에 미사일 감시와 방어 임무를 전담하

청과 동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 우주 최강국인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1958년 7월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신설해 도약적인 우주발전을 이뤘으나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해오다 2021년부터 국방우주력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책임지고 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시킨 것은 우주산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절차 등을 보다 촘촘하게 검토·보완해야 한다.

둘째,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 프로젝트와 우주기술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해 K뉴스페이스를 육성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우주개발 사업을 주관하다 보니 민간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기술 축적도 미흡했

다. 차제에 국가가 보유한 우주기술을 민간으로 넘기는 스피노프 정책을 통해 민간군산학연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

셋째, 우주선진국들과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참여 중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처럼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연구기관·군·대학 차원에서도 우주선진국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우주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우주전문 인력은 위성체·발사체·지상체·위성 운용 및 우주과학 분야로 나뉘는데 이 분야는 최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참에 정부는 우수한 인재들을 우주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병역특례제도와 국방우주전문가 양성을 위한 군 위탁교육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어느 가난한 시인의 독백

안호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칼럼니스트)



어제 뜨고 진 해(太陽)와 달, 그리고 하늘과 바람, 오늘도 똑같다. 다만 해(년)만 바뀌어 새해를 맞이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맘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作心三日)’을 기획하며 부푼 꿈에 취해 있다.

지난 한해를 돌아켜보면 참으로 위기의 한 해를 보낸 것 같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등골이 오싹하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칠순이 훨씬 넘은 나이에 만감이 교차한다.

지나간 세월 속에 무엇을 하였으며, 무엇을 이루어 왔는지 스스로 자문자답도 해보지만, 역시 인생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명답은 있다. 이 나이쯤 되면 열심히 살아온 건전한 정신과 건강이 함께한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인생의 명답이 아니겠는가.

늦은 오후 한 청년이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공원을 청소하던 관리인은 넋을 잃은 듯 오랫동안 앉아있는 청년이 조금 수상해서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젊은이. 당신 누구요?”

“글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관리인이 다시 청년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 집이 어디요? 어디서 왔어요?”

“그것도 잘 몰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인은 조금 강경한 어조로 청년에게 물었다.

“계속 여기 있을 거요? 어디 갈 데 없어요?”

“글쎄요 그것을 알았으면 벌써 여기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관리인은 엉뚱한 대답만 하는 청년이 더욱 수상하게 여겨졌지만, 청년은 관리인의 미심쩍은 표정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이 받았던 질문에 대해 골몰했다. 이 청년은 근대 합리주의 철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프랑스의 ‘르네 데카르트’였다. 관리인으로부터 자신이 받았던 질문에 골몰했던 것처럼 과연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내가 누구인지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욕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 깊은 회의감에 빠져든다.

올 한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칠십 평생 살아온 지난날들을 돌아켜보았다. 흘러가는 구름 같은 세월에나니만 들었다. 지난날들을 뒤돌아보면 아쉬움만 남고, 남은 삶을 생각하면 안타까움만 가득하다. 이제 칠순을 넘기며 인생에 대해 알만하고, 인생을 느낄만하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하니 어느덧 이마엔 주름이 깊이 새겨지고, 머리칼은 하얀 백발이 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너무도 빠르게 흐른다.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 일찍 깨달았더라면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이가 들면 아는 게 많아질 줄 알았는데, 알고 싶은 게 더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이해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졌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어른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오히려 긴장해야만 했다. 나이가 들면서 질은 향기 보다는 은은한 향기가, 폭포수보다는 잔잔한 호수가, 화통함보다는 그윽함이, 또렷함 보다는 아련함이, 살가움보다는 무던함이 질러가는 것보다 때로는 돌아서가는 게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숯한 세월이 이렇게 소리 없이 필자를 휘감아 가며 끊임없이 변화시켰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나를 “나이가 들면서...”인생의 스승은 책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해야했고, 더 많이 이해하며,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 더욱 무던히 애썼다.

그러나 살아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나 필자를 가르치는 스승은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었다. 풀리지 않는 일에 대한 정답도,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의 메시지도, 꾸밈없는 시간을 통해서 찾았다.

언제부터인가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통해 삶의 정답을 찾게 되었다. 누구에게도 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은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다.

필자가 느낀 가장 겸손한 시간은 자기 분

수에 맞게 행동하는 시간이고, 가장 비굴한 시간은 자기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가장 불쌍한 시간은 구걸하는 시간이었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으며, 가장 현명한 시간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시간이었으며, 내게 가장 뿌듯한 시간은 무엇인가를 성취한 시간이었다. 가장 달콤한 시간은 일한 뒤 흐른 땀을 닦으며, 사발 면을 먹은 후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바로, 가족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가장 가슴아팠던 시간은 이별의 시간이다. 나이가 들면서 무엇보다도 생각나는 것은 우정을 함께 나눌 고향 친구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안진의 지란지교(芝蘭之交)란 '시(詩)'가 있듯이 벗이 가까이 있고, 오래된 친구가 많을수록 즐거운 것은 사실이다. 누구나 친구는 많이 있을수록 좋겠지만, 참다운 벗은 그리 흔치않다. 누구나가 사회생활 속에 무수한 사람들과 친구들의 만남을 잘 유용하게 적응하면서 지내왔지만,모두 다 수용하며 만날 수는 없다.

옛말에 술과 신발과 마누라는 오래될수록 편안하다는 말이 있듯이 인생에 있어서도 삶의 전부는 재물도 아니요, 지위나 권력도 아닌 상대방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말고 본연(本然)의 덕(德)을 가려 사귀어온 '믿음의 친구' 특히 고향의 친구가 가장 진정한 '벗'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벗과 친구'란 누구일까.

“부결자화(不結子花)는 휴요종(休要種)이요.무의지봉(無義之朋)은 불가교(不可交)라.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고,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얼마나 좋은 글인가. 또 있다. “불견자화 휴요종(不見子花 休要種.꽃이 피지 않는 나무는 씨를 뿌릴 필요가 없다.)이요.무의지봉(無義之朋)은 불가교(의리가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라. 주식지우(酒食知友)는 천개유(千個有)하고 급난지붕(禁難攀崩)은 '일개 무'라.

술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친구는 천명이나 되지만,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할 친구는 한명도 없다.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디선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세 명의 친구만 남긴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다. 세상에서의 친구란? 내가 잘나가고 좋은 시절에는 함께할 사람이 많지만, 내 처지가 곤궁하고 어려울 때에 함께할 친구를 갖기란 어려운 것이 세상의 인심이다.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다. 즐겁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하여간 좋은 '벗'의 인연은 서로가 함께 노력하며 긴 여행길에 길잡이가 되는 즐거운 '일도인생(一到人生)'이 아니겠는가. 옛날 성인께서 주신 정답이 생각한다.

“일체 유위법(一切有爲法)몸이나 생명이나 형체 있는 모든 것은 여몽 환포 영(如夢幻泡影)꿈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 같은 것이니 응작 여시관(應作如是觀)이를 잘 관찰하여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세상에는 누구나 젊어지고 있는 여덟 가지의 큰 고통이 있다고 말한다. '생로 병사'(生老病死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

는 고통)과 '애별리고'(愛別離苦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 등과 헤어지는 아픔). '원증회고'(怨憎會苦내가 싫어하는 것들. 원수 같은 사람 등과 만나지는 아픔). '구부득고'(求不得苦내가 원하거나 갖고자 하는 것 등이 채워지지 않는 아픔). '오음성고'(五陰盛苦육체적인 오욕락(식욕·수면욕·성욕·명예욕)이 지배하는 아픔 등)다.

이런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겪어야 하는 짐수레와 같은 것. 한 평생 살아가면서 필자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피할 수 없으면 껴안아서 내 체온으로 다 녹이자. 또한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스스로 나서서 하자. 또 언제 해도 할 일이라면, 미적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하자.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자.’

살다보니 이 세상일은 풀려가는 순서가 있고,또 순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조금 양보한 그 자리, 내가 조금 배려한 그 자리, 내가 조금 덜어놓은 그 그릇, 내가 조금 낮추어놓은 눈높이, 내가 조금 덜 챙긴 그 공간, 그 공간은 만 생명이 함께 살아야 하는 공생(共生)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아내가 내 것인가, 자녀가 내 것인가, 친구들이 내 것인가, 하물며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닐진대, 누구를 내 것이라 하고, 어느 것을 내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 눈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이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40여년 나를 묵묵히 맞아준 아내가 고맙다. 내색은 안 해도 나를 아빠로, 장인으로 선택한 딸들과 사위에게 고마운 마음 간절하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위로는 조상님께 감사하고, 이제까지 삶을 지탱해준 사회에 감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웃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아울러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사람들이 눈물겹도록 고맙다. 생각할수록 이 세상은 고마움과 감사함의 연속일 뿐 내 것 하나 없어도,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가정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가족이 있고,건강함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두 다리가 있어 어디든 다니면서 여행할 수도 있고,자연에 안겨,포근함을 느껴며 글을 쓰고, 노래도 부를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 복 받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며칠 전 고등학교 동창들의 모임이 있어 나갔다. 동기생 350명 중 150여명이 이 세상을 떠났다. 연륜 탓인가. 모두 흰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되어있다. 사회를 보던 친구가 “모두 2040년까지 살아 한 달 이상의 연휴를 즐기자”고 하자 한 친구가 “야 뭐라 하는 거야 너무 오래 살아 죽었을 때 술 따라주는 친구가 없으면 되겠느냐, 그래도 친구들 있을 때 죽어야 행복한 거야”가슴이 뭉클해진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인생도 잠시 쉬어갈 뿐이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남은세월이 있기에 아직은 맞추어야 할 삶이다. 그래서 나름의 모자이크를 마지막까지 멋지게 완성 시켜야한다.

이제 한해를 맞이했으니 원하던 원치않든 한 살이 더 들었다. 역(逆)으로 치면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초면에 첫 인사로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몇 살 먹었느냐고 묻는 것이지만, 영어로는 “How old are you” “얼마나 늙었느냐?”는 의미다. “너 몇 살이야?” 지하철의 이 문장은 질문이 아니라 선전포고다. 직전의 상황은 거의 흡사하다. “왜 반말이야?” 그런데 분쟁의 근거는 다양하다. 보고 있는 유튜브가 매우 시끄

럽거나, 꼬고 앉은 다리가 걸리적거리거나, 젊은 것이 경로석에 버젓이 앉아있을 때, 노인이 대접을 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옛날에는...”하면서 아쉬워할 때, 이방인 취급 받는다.

나이 많이 먹은 게 죄(罪)다. 이제 한 해를 맞이했다. 곧이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내일은 생각하지말자.

‘오늘 하루’, ‘오늘 하루’에만 충실하게 소중한 삶을 살자.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오늘’을 살자. 내일은 영원히 맞이할 수 없

만, ‘오늘’은 아침에 눈만 뜨면 맞이할 수 있다. 하루살이 같이 오늘만 산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삶을 살 수 있다. 은혜와 사랑을 흠뻑 뒤집어쓴 사람, 내 머리 조아려 낮게 임하리라.

뒤늦게 깨달은 것은 ‘체념의 삶’이다. ‘체념’은 곧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데 무슨 욕심이 있고,미움이 있겠는가. 즉 모두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런 ‘체념의 삶’을 살기위해 오늘도 두 손 모아 합장하며 수행의 길을 걷는다.//

진정한 친구

전대길 (병176기, (주)동양EMS 대표이사,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친구(親舊)란 한자를 들여다본다. ‘친할 친(親)+옛 구(舊) 또는 친구 구(舊)자다. ‘친할 친(親)자는 ‘설립(立)+나무 목(木)+볼 견(見)자로 되어있다. 장작을 지게(A Frame)에 가득 지고 장날에 시장에 나무를 팔러 간 아들이 무사히 오기를 고대하는 노모(老母)가 밤이 되어도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아 마중을 나갔다.

동구 밖 느티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어디쯤 오는지 오른손을 이마에 대고 저 멀리 아들 오기를 바라보는 형상의 표의문자가 바로 ‘친할 친(親)자다. ‘풀초(草)+새 추(隹)+절구 구(臼)의 ‘옛 구(舊)자는 ‘새가 풀을 모아서 지은 동지’를 뜻한다.

신숙주와 한명회는 친구다. 한마디로 절친(切親)이었다. 성장 배경과 성격도 달랐지만 사돈까지 맺으며 오랜 시간 가까이 지냈다. 하루는 세조가 두 사람을 불러 술자리를 열었다. 세조(世祖)가 술이 건하게 취해 신 숙주에게 장난을 쳤다.

평소 농담을 할 줄 모르는 그의 팔을 꺾으며, 자신의 팔도 꺾어 보라며 팔씨름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임금의 몸에 함부로 손대는 것은 큰 죄였기에 거절했지만, 세조는 더욱 집요하게 부탁했다. 결국 신 숙주는 세조의 팔을 살짝 비틀었다.

그렇게 술자리가 끝나고 아무 일도 없는 듯했다. 하지만 한 명회는 신 숙주의 하인을 부르더니 집으로 돌아가거든 주인에게 꼭 방에 불을 끄고 일찍 잠을 자라는 말을 전하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날 밤 세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신 숙주의 행동이 괴심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하라고 시켰지만, 감히 왕의 팔을 비틀다니? 세조는 신 숙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의 집으로 내시를 보냈다. 그의 집 동정을 살피고 돌아온 내시는 신 숙주의 방에 불이 꺼져 있다고 세조에게 고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늦은 밤까지 책을 보는 신숙주가 잠을 자다니 아까는 취했던 게 분명하구나” 세조는 그제야 언짢은 마음을 풀며 잠을 청했다. 사실 신 숙주는 그날 밤도 불을 켜고 책을 읽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하인이 급히 달려와서 한명회의 말을 전해 들은 신 숙주는 급히 등잔불을 끄었다.

다행히 그 뒤에 내시가 다녀간 것이다. 누구보다 왕의 성격을 잘 아는 한 명회 덕분에 신 숙주는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친구이자 사돈 사이인 한명회가 신 숙

주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다. 친구는 1. 꽃, 2. 저울, 3. 산, 4. 땅과 같은 친구로 사람들은 구별한다.

친구가 없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좋은 친구를 얻는 일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예로부터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오무(五無)’를 든다. ‘무정(無情), 무례(無禮), 무식(無識), 무도(無道), 무능(無能)’한 인간을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참된 친구란 어떤 친구인가?

공자가 논어에서 제시한 3가지 기준이다. ‘익자삼우(益者三友)’란 ‘정직한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이다. 반면 해로운 ‘손자삼우(損者三友)’는 ‘아침하는 사람, 좃대 없는 사람, 겉으로 친한 척하고 성의가 없는 사람’이다. 익자삼우(益者三友)만 찾지 말고, 내가 먼저 남에게 익자삼우(益者三友)가 되어야 한다.

친구 사이에는 <911 법칙>, <369 법칙>, <248 법칙> 등이 존재한다.

먼저 <911 법칙>이다.

상호 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9번을 잘해도 10번째, 다음 11번째도 더욱더 잘해 주려고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은 조금만 친해져도 말이나 행동에 조심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좋았던 인연이 악연으로 변할 수 있다.

<369 법칙>이다.

3번 정도 만나야 사람 사이가 잊혀 지지 않는다. 6번 정도 만나야 마음의 문이 열리며 9번 정도는 만나야 친근감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 자주 만나야 한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369 법칙을 명심하고 최소한 9번 이상은 꾸준히 좋은 만남을 지속하는 게 좋다.

<248 법칙>이다.

다른 사람에게 2개를 받고 싶다면 4개를 주고 4개를 받고 싶다면 8개를 친구에게 주라. <Give & Take>가 100% 맞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게 필요조건이다. 인간관계는 불공평하다. 248 법칙에 따라 받고 싶은 것의 두 배를 주자.

우아하게 늙는 것은 노인들이 바라는 이상이다. 하지만 ‘노인 4고(苦)’라는 말이 있듯이 노인들에겐 바라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온다. ‘병고(病苦),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다.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축복(祝福)받은 노인이다.

공자(孔子)는 노년이 되면 모든 욕심의 유혹을 뿌리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속에는 노욕(老慾)은 곧 노추(老瞋)

와 직결된다. 노욕이란 불청객이 5고(苦)로 하나 더 추가된다. 덕망이 높다는 평판의 '존 맥아더 목사'가 노인들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다.

“단지 오래 살았다는 것만으로 늙은 것은 아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말년에 꿈마저 저버린 사람은 대신 마음의 주름살이 생긴다”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꿈은 버리지 말자. 이 때문에 남은 인생 여정을 살아갈 노인들은 국가나 사회가 주변에서 무엇을 해주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일을 찾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해서는 곤란하다.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야”라고 푸념하지 말아야 한다.

2022년 2월 26일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 중 한 분인 이어령 교수가 8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이어령 교수가 고종명(考終命)할 때 남긴 후회(後悔)하신 말씀이다.

“나는 존경을 받았으나 사랑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외로웠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다” “남들이 생각한 이 아무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나는 사실상 실패한 삶을 살았음을 느낀다. 세속적인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는 할 수가 있겠으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겸손이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다. 동행자 없이 숨 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였다”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수업'에서 강조했던 친구와 성공에 관한 말씀이다.

“정기적으로 만나 밥 먹고 커피 마시며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삶이 풍성해진다. 나이 차이, 성별, 직업과 관계 없이 함께 만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외롭지 않다. 조용히 얘기를 듣고 얘기를 나누면서 조용히 미소 짓는 친구가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끝으로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수명(壽命)이 늘어나 100수(壽)의 노인들이 늘어난다.

노후(老後)의 친구는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가까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자주 만나야 하며 셋째는 취미도 같아야 한다.

대학 친구보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 편한 고등학교 동기생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들 이구동성(異口同聲)이다. 필자의 고교 친구인 김택 현대산업개발 前. CEO도 “나이 들수록 남는 건 고교 동창 친구뿐이야”라고 일러 준다. 주변인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인이 상인을 속이는 데에 이르기까지 모두 죄악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성실함으로 남을 믿게 하려면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자기 주변에 직위는 높지 않지만 멋진 리

더들이 같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통의 리더(Great Leader) 역할이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에는 경청하겠다는 자세로 주변 사람들을 촘촘하게 해 자기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방을 짚다

김완용 (예 준위, 준사관58기, 한국공무원문학협회장)



바람은 이제 더 데려갈 낙엽도 없다. 바람은 싸늘히 골목을 배회하거나, 추녀 끝 마른 시래기 타래를 흔들거나, 빈 나뭇가지에

처음 배속 후 내 희망은 야간대학에 갈 수 있다는 아무진 기대에 들떠 있었는데 그것은 혼자만의 희망사항일 뿐, 꿈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 달이면 끝나겠지 하던 작업이 졸업식이 끝나면 다음 졸업식을 위한 새로운 작업이 꼬리를 물었다. 공군의 지휘부는 매년 사관생도 졸업식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변화된 교육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했다.

아얏 외로워 웅웅 운다. 더러는 쓸려간 낙엽들을 모아 논두렁과 밭두렁 후미진 곳에서 어지럽게 서로를 부둥켜안고 체온을 나누며 겨울의 혹독한 강을 건너갈 준비를 한다.

산을 옮기고, 연못을 파고, 나무와 돌을 옮기는 작업이 일 년 내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는 실증이 나고 희망이 사라졌다.

이토록 계절은 봄을 시작하여 여름과 가을을 건너 겨울로 왔다. 돌아보면 무심히 흘러간 1년이란 시간이 너무 빠르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인데, 그 길을 우리는 아무런 느낌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간혹 힘든 삶의 여정을 만나면 그것이 팔자라고 단정해버리기 때문이다.

고교시절부터 문학을 꿈꾸고, 문학을 위하여 살겠다던 나는 군대에 들어와 수송특기를 받아 매일 트럭을 몰고 작업장을 맴돌아야 했다. 밤이면 고단한 몸을 끌고 부대를 무단이탈하여 부대주변 술집을 찾았다. 밤늦도록 마신 술은 아침까지 취했고, 몸은 날로 아위어 갔다.

견다보면 누구나 빼앗길 때가 있다. 나도 허방을 짚어 삶이 송두리째 휘청거린 적 있었다. 언제나 가을 깊은 이따쯤이면 가슴에 웅이처럼 남아 있는 기억의 마디들이 살아 돌아온다. 그리고 후회의 칼날을 돌아보지만 때는 이미 늦다.

중사 진급심사가 임박할 즈음 어느 날, 작업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내무반에 누워 있는 나에게 대대 인사장교가 찾아왔다. 인사장교는 나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김 하사는 근무성적이 너무 나빠서 진급할 수 없으니 제대하는 것이 좋겠는데 본인은 어찌 생각하는가?”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 해에 사관학교로 함께 배속 받아와 생활하던 동기생들은 모두 진급을 했다. 나 혼자만 진급을 못했다는 열등감에 오기가 발동하여 그 후 지휘관들에게 잘 보이도록 군대생활을 더욱 열심히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진학을 위한 재수를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 친구가 우연히 흘리는 말로 공군부사관 지원에 관한 말을 들려주었을 때, 나는 컷등에도 담지 않았었다. 그런데 야간대학에 갈 수 있다는 달콤한 지원요강의 사탕발림에 허방을 짚어 공군에 36년이란 젊은 청춘의 세월을 다 바친 후에 정년퇴직하고, 62세의 늦은 나이에 겨우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대학이란 목표를 향해서 참으로 많은 세월을 돌아왔다. 그리고 내 삶의 길에 앞니 빠지듯 빠져버린 징검돌 하나를 찾아 드디어 놓았다.

동기생들보다 중사진급이 1년 늦은 나는 미친 승냥이마냥 열심히 뛰면서 근무한 결과 상사진급을 2년 만에 하고, 부사관의 꽃으로 불리는 준위임관은 선배들보다도 몇 년을 먼저 하여 후방특기 준사관으로는 많은 13년 2개월의 장기복무를 하게 되었다.

하사임관 후 지금의 보라매공무원 공군사관학교로 배속을 받은 나는 서울에는 대학도 많으니 내 뜻대로 소원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생도훈련의 후방지원업무를 맡은 나는 밤낮으로 녹화사업이라는 교내환경조성작업으로 졸업식준비를 위하여 14년 동안 나무, 잔디, 돌 등을 옮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했다.

가을이오면, 바람에 낙엽 쓸리듯 허방을 짚고 길을 바꾼 내 젊은 날이 떠오르고, 그 안에서 제2의 삶을 열심히 찾았던 아린 추억들이 도돌이표 찍고 돌아와 스쳐지나간 바람의 흔적처럼 가슴을 몽클하게 한다. 이제 살아갈 길 멀지 않은 70대 중반의 나이에 허방을 짚었던 지난날을 교훈삼아 올곧은 마지막 길을 묻는다.//

리더의 소통(疏通)

황태인 (예 중위, 학사 70기, ㈜토브넷회장)



‘검은 토끼의 해’인 새해에는 토끼처럼 감수성과 유머가 풍부해 소통을 잘하는 리더가 돼 자기가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소통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무기다. 리더의 소통 능력은 “코끼리도 춤 출 수 있게 한다”는 말처럼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다.

야 한다. “우리 직원들은 누구에게서 월급을 받나요? 회사? 물론 회사에서 주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다.” 리더는 자기 직무에 대해 소신과 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영업부문 리더라면 입사 때부터 간직한 비밀수첩이 있어 거러쳐 직원들의 취미와 특징까지 기록해 두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파는 건 상품이지만 상대하는 대상은 사람이야. 우리의 마음을 그분들에게 진심을 갖고 대해야 고객들이 우리 상품을 산다는 철칙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소신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계적인 경영학의 구루 피터 드러커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서 업(業)의 본질을 파악하고 일의 보람을 찾아 실천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하급 관리자라 하더라도, 그는 이미 톱 매니저먼트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리더의 능력은 ‘자기를 위해 일하는 직원들이 가진 능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구성원 모두를 리더로 만들어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을 리더로 만들겠다는 것을 조직의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업무 경험, 문화, 임파워먼트 등 다양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나가야 한다.

리더의 소통 능력은 경청하는 능력이다. 경청할 수 있어서 성공한 리더를 꼽으라면 한나라 고조 유방(劉邦)이다. 유방은 배운 것도 없고 주변 친구들은 한량들이었다. 그러나 유방은 타고난 경청자였다. 그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자 육고(陸賈)란 신하가 ‘황제는 이제 고전을 공부하여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유방이 ‘내가 말 타고 전장에서 피 흘릴 때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고전을 배우라고 하느냐’고 반문하니 육고가 ‘말 잔등에 올라탄 천하를 통일했다고 해서 말 잔등에 올라탄 채로 천하를 경영할 수는 없습니다’고 했다. 유방은 바로 알아차렸다. 유방을 위대한 통치자로 만든 핵심은 부하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았다는 것이다.

노자는 ‘공성이불거(功成而不居)’라며 ‘리더는 어떤 공을 이루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되고 더 높은 시선을 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리더는 자신의 성취를 바탕으로 시선을 높이려고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리더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리더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은 남을 속이는 일이다. 다산 정약용은 “하늘 땅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은 성실(誠實)함이며 조금이라도 속임이 없어야 한다. 하늘을 속이는 것이 가장 나쁘고, 임금과 어버이를 속이는 것부터 농부가 농부를 속이고, 상

리더는 직능에 따라, 직급에 따라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리더는 직무의 본질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